

부산상공회의

Story for 부산CEO

Show

신년특집
1월호
Vol. 622



謹賀新年

존경하는 상공인 여러분!
푸른 용이 상징하는 갑진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것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여러모로 부산경제의 입장에서 아쉬움이 남는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위해 훌륭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여겼던 엑
스포 유치전에서 총력을 기울였지만 아쉽게도 고배를 마셨
습니다.

정부와 부산시 그리고 대기업과 지역경제계가 원팀으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뿐 엑스포 유치
활동을 통해 부산이 얻은 것이 적지 않았던 만큼 과정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유사 이래 처음으로 중앙정부와 대기업이 나서서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군소 도서국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180여개
국가에 동북아 해양도시 부산을 홍보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부산경제가 관광·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開新創來

또한 가덕도신공항과 북항재개발을 비롯한 주요
현안들의 추진동력도 확보하였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유치 불발에 따른 후유증을
걱정하기 보다는 부산이 새로운 도약의 출발선에
서있음을 인식하고 다시 한 번 신발끈을 조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계도 2024년을 부산경제 재도약의 원년
으로 삼고 미래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산업은행 부산이전, 에어부산 분리매각 등
당면한 현안들의 해결방안을 조속하게 모색하고,
가덕도신공항과 북항재개발을 비롯한 기존의 주요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
습니다.

또한 정부가 부산을 남부권의 거점도시로 발전
시키기 위해 내놓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지역발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금리, 고물가 등 녹록치 않은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의 핵심 축인 기업들이 미래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다각화와 경영혁신에 대한 지원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사업다각화가 필수
적인 만큼 사업재편 지원센터의 신설과 함께 기존
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협력 플랫폼을 더욱 강화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의 아픈 고리인 청년 이탈을 막기
위해서도 지역기업들이 솔선수범하여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계는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
미래를 창조한다는 뜻의 개신창래 너자를 깊이 되새
기며 부산의 발전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장인화**



Contents

MAGAZINE 2024 vol. 622



06

02 신년사

INSIDE BCCI

06 2024년 신년인사회

10 2024년 부산상공회의소 사업계획

취향저격

14 영감을 주는 공간
독립서점 '크레타'

16 힐링 여행지
마카오에서 꼭 해야 할 7가지

20 문화의 향기
<람보르기니: 전설이 된 남자>

22 고전 속 지혜
노자의 경영 컨설팅



14



16



20



24



26



28



32

상의 돋보기

24 STORY OF 캡틴장

26 BCCI PHOTO ESSAY

소통공간

28 Keyword of 부산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북항 재개발'

32 LOOK AT ME
플라시스템

경제 인사이트

36 경제키워드
2024년 10대 소비트렌드 전망

38 웹툰으로 보는 경제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추진

40 지식의 창고

멤버스 라운지

42 지역 경제계 주요 소식

44 제13기 글로벌 경제인 과정 안내

46 부산상공회의소 2024년 실무교육



부산상공회의소 Show
바로가기

발행일 2024년 1월 8일
발행처 부산상공회의소
발행인 장인화
편집인 이영환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전화 051-990-7000
편집·인쇄 (주)프린테크 051-301-3113

부산상공회의소 Show에 게재되는 각종 내용은 반드시 부산상공회의소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상공회의소 공식 SNS 채널



YouTube



Instagram



facebook

부산상공회의소 2024년 신년인사회

새해 부산 발전을 기원하는 신년인사회 개최

부산상공회의소는 1월 2일(화) 오후 5시, 부산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부산 지역 주요 인사들이 모여 갑진년 새해 인사와 함께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길 기원하는 '2024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 부산상의가 주최하는 신년인사회는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지역 최대의 신년하례식으로 매년 업무 첫날 개최하고 있다.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향한 새로운 도약 다짐

이번 행사에는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계 대표들과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의장, 하운수 부산시 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각급 기관장, 언론사 및 시민단체 대표 등 주요인사 600여명이 참석하여 한 목소리로 지난 해 엑스포 유치 불발의 후유증을 빠르게 극복하고, 부산의 미래인 글로벌 허브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였다.



주요인사들을 맞이하는 장인화 회장과 박형준 시장, 안성민 시의회의장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주요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장인화 회장



신년사를 하는 장인화 회장

지역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전력투구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지역경제는 새로운 길을 열어 미래를 창조한다는 뜻의 개신창래 녀자를 가슴에 새기고, 지역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산업은행 부산이전,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비롯한 지역현안은 물론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지역기업 사업다각화 선도 등 부산경제의 미래 청사진을 새롭게 그려나가기 위해 전력투구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024년이 글로벌 허브도시 원년이 되는 한해를 만들자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해 우리가 엑스포 유치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부산이 어디로 가야되는지 그리고 부산이 얼마나 위대한 도시인지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는 한해였다”고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중앙정부도 화답해서 금년에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부산의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산업은행 이전, 북항 재개발을 비롯한 부산 곳곳을 새로운 글로벌 허브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화답을 해준 만큼 우리가 이 힘을 모아서 2024년은 글로벌 허브도시의 원년이 되도록 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신년사를 하였다.



신년사를 하는 박형준 시장



안성민 시의회의장

하윤수 교육감

전봉민 국회의원

강병중 회장

이어진 부산 발전을 위한 축배제에서는 안성민 부산시의회의장,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국민의힘 전봉민 국회의원, 넥센 그룹 강병중 회장이 건배제의를 통해 참가자들과 함께 새해 부산경제 발전을 위한 덕담을 나누었다.

아울러 이번 신년인사회에서는 마지막 순서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새해의 모든 소망이 다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다 잘될거야 등 합창 공연을 통해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하였다. [f](#)



1, 2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지역의 각계각층 인사들과 기념촬영
3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

부산상공회의소

2024년도 사업 계획

VISION

부산경제 활력 제고와 혁신경제 성장 기반 강화

MISION 1
부산경제
활력제고

MISION 2
혁신경제 성장
기반 강화

부산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현안사업 추진

- 지역현안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구심점 역할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소통·협력을 통한 지역경제계 대표 역할 강화

- 지역기업 및 부산시와의 소통·협력 강화
- 지역상공인과의 교류협력 등 경제계 대표 역할 강화
-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상공회의소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기업혁신 지원

- 스타트업 육성·지원을 통한 산업계 활력 증진
- 샌드박스 지원을 통한 혁신 기반 조성
- ESG경영·신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혁신 지원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환경 지원 및 대응

- 경영환경 지원 및 미래성장 동력 확보
- 기업애로해소 지원 및 회원서비스 강화
-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 지원

국제협력 및 글로벌통상 현안 대응 강화

- 글로벌 경제 및 통상 협력 강화
- 해외전시회·박람회 등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 FTA지원사업 원산지증명발급을 통한 수출활동 지원 강화

부산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현안사업 추진

1 지역현안사업 지속적 추진을 위한 구심점 역할

▶ 지역현안사업 주도적 추진

- 가덕신공항 건설 및 공항복합도시 조성
- 부산형 복합리조트 유치 추진 사업
- KDB산업은행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 사업

▶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규 아젠다 발굴

- 경제정책자문위원회·블록체인산업특별자문위원회 운영
- 지역개발 현안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
-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소통·협력을 통한 지역경제계 대표 역할 강화

1 지역기업 및 부산시와의 소통·협력 강화

▶ 「부산원스톱기업지원센터」를 통한 소통창구 기능 강화

- 「부산원스톱기업지원센터」를 통한 온·오프라인 기업애로 상담 및 지원기능 강화
- 규제개선에 적극 대응하며 발빠른 피드백 제공

▶ 국화·정부·부산시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확립

- 부산상의-부산시 경제협의체 운영
- 국회의원 및 정부인사와의 정책간담회
- 국화·정부 등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2 지역상공인과의 교류·협력 등 경제계 대표 역할 강화

▶ 경제현안에 대한 지역 경제계 대표 의견 개진

- 정책자문단·경제전문가그룹을 활용한 경제현안 해법 모색
- 지역기업과의 접점을 활용한 경제계 목소리 수렴·건의
- 경제 관련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건의
- 주요 업종 모니터링 위원회를 통한 산업 현장 의견 수렴

▶ 지역상공인 간 교류·협력 강화

- 신년인사회, 부산산업대상 등 지역경제계 대표 행사 개최
- 부산경제포럼, 글로벌 경제인과정, 글로벌 넥스트포럼 등 회원기업간 교류 확대
- 분야별 위원회 활동 활성화

3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상공회의소

▶ 사무국 조직의 체질 강화

- 제25대 의원선거 및 임원 선출
- 회원기반 강화 및 경영지원 체제 강화
- 사무국 디지털화 등 혁신 추진
- 지자체, 유관기관 등 연대·제휴로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

2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 지역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산업계 제언

- CEO FOCUS: 경영인 의견 조사
-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발굴을 위한 연구
- 산업별 주요 이슈 점검 통한 정책 과제 발굴

▶ 전문가 그룹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경제 제언

- 제22대 총선 건의과제집 발간 및 건의
- 경제조사 전문가 그룹 운영
- 지역 유관 연구기관 조사연구 협력사업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기업혁신 지원

1 스타트업 육성·지원을 통한 산업계 활력 증진

▶ 유망 스타트업·벤처기업 전략적 육성·지원

- 부산상의 스타트업 밋업 네트워킹
- 스타트업 선후배 기업인간 후견인 네트워크 구축
- 스타트업 육성 위한 멘토링 그룹 운영
- 차세대 기업인과 스타트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2 샌드박스 지원을 통한 혁신 기반 조성

▶ 규제환경 개선 및 규제 샌드박스 운영

- 부산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운영
- 제도·규제혁신 성과 점검 및 발전방향 모색
- 지역 주요 특·지구별 규제개선 과제 및 기업애로 조사

3 ESG경영·신기업가 정신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혁신 지원

▶ ESG 경영 확산 및 실천 지원

- 「공급망ESG지원센터」 운영 통한 실사 서비스 제공
- ESG 경영 컨설팅 및 진단 평가
- ESG 포럼 및 지원협의회 등 민관 논의 활성화

▶ 신기업가 정신 확산 및 탄소중립 이행 지원

- 신기업가 정신 확산을 위한 경제계 실천 홍보
- 에너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동남권 원전산업 실태 조사
- 기후 변화 대응, 부산지역 기상·기후산업 실태 조사
- RE100 대응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선제적 방안 모색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환경 지원 및 대응

1 경영환경 지원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 지역 중소기업 경영환경 지원

- 기업의 사업재편 선제적 지원 및 관련 제도 홍보
- 글로벌 위기 대응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산기업 실태 조사
- 고령자 직무역량 강화 및 고용 창출 활성화 방안 조사
-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지역기업 대응 실태 조사
- 고령자 직무역량 강화 및 고용 창출 활성화 방안 조사
-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지역기업 대응 실태 조사

▶ 신성장동력 확보 및 기존산업 고도화 연구

- 부산 제조업 기술수준 동향과 과제
- 부산지역 고령친화산업 실태 및 육성방안
- 부산지역 기업지수 산출 및 유망기업 선정
- 지역기업의 기업문화 혁신을 위한 조사

2 기업애로해소 지원 및 회원서비스 강화

▶ 경영애로해소 지원 및 경영환경 개선

- 지역 주요 산단 현장방문 및 지역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 개최
- 찾아가는 기업애로해소 현장방문반 운영
- 지역기업 애로해소 간담회 개최

▶ 회원사 경영지원서비스 강화

- 회원사 창립기념 축하사업
- 회원기업 온라인 홍보 및 방문 교육 지원 사업
- 회원사 노무·세무·회계 등 직무 교육 사업
- 회원사 제휴 서비스 확충

3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 지원

▶ 산업·지역 맞춤형 인적자원 개발 주도

- 전문 인력 매칭 플랫폼 구축·운영 및 일자리 매칭 사업
- 부산지역 산업 수요에 특화된 맞춤형 인력 양성 지원
- 부산지역 국가기술자격 시행 프로세스 효율성 제고

국제협력 및 글로벌 통상현안 대응 강화

1 글로벌 경제 및 통상 협력 강화

▶ 글로벌 경제협력 활동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

- 해외순방 경제사절단 파견 및 방한사절단 영접
- 글로벌시장 개척 추진단 파견
- 해외 주요기업과 회원사간 네트워킹 기회 제공
- 해외 상공회의소 협력 네트워크 강화

2 해외전시회·박람회 등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확대

- 주요국 경제동향 세미나 및 국가별 통상정보 제공
- 부산항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
- 싱가포르 조션 및 해양플랜트 전시회
- MTA 베트남 호치민 기계 박람회
- 호치민 국제 식품 및 식음료 박람회
- MTA 베트남 하노이 기계 박람회
- 태국 방콕 국제 기계 전시회
- 중국 광저우 조션 해양 전시회

3 FTA지원사업·원산지 증명발급을 통한 수출활동 지원 강화

▶ FTA지원사업 활용도 제고

- FTA지원 설명회·세미나 개최
- FTA전문인력 양성 및 FTA 정책 간담회
- OK FTA컨설팅·자체 컨설팅 사업

▶ 원산지증명 전문성 강화

-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인증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개선
- ATA 까르네 사용자 기반 확대
- INCOTERMS 등 국제무역규칙 교육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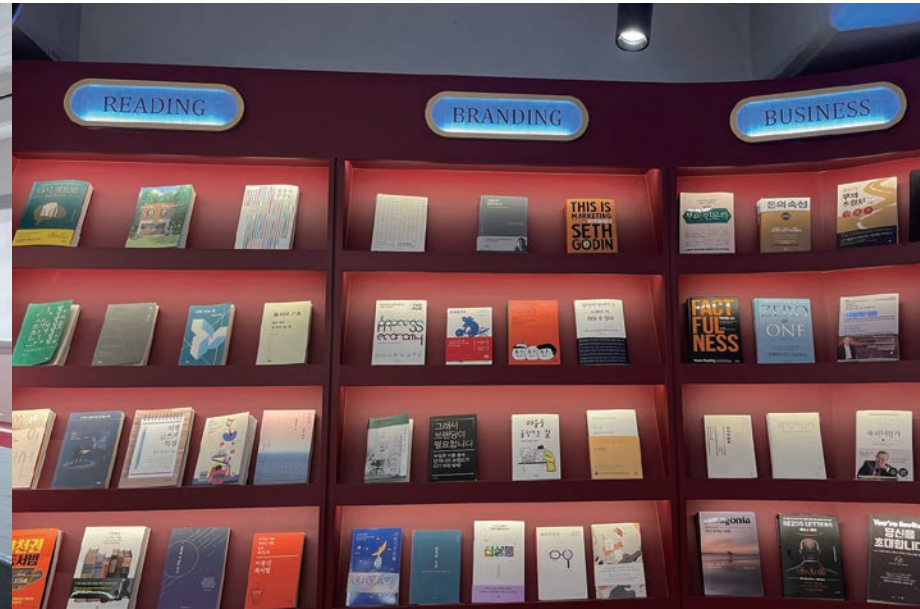
2024년 주목해야할 신규사업

사업재편 현장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글로벌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복합 위기 상황 속에 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산업 위기 지역 내 기업들의 사업재편 촉진 및 상법 등 특례 분야 주총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현장 지원센터 설립 추진 및 운영예정



1



강동훈 대표가 직접 큐레이션한 도서들

사유와 자유의 섬 c r e t e 독립서점 '크레타'

최근 들어 대형 서점보다 훨씬 작은 면적과 책을 보유하고 있는 '독립서점'이 늘어나고 있다. 독립서점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책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인만의 취향과 안목으로 골라낸 특색 있는 책으로 채워진다. 이렇게 한 사람의 안목으로 큐레이션 된 책들로 채워진 공간의 분위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선사한다. 이 공간 속에서 방문자들은 사색에 잠기는 시간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어 가기도 한다. 책과 함께 사색의 시간을 보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간인 독립서점 크레타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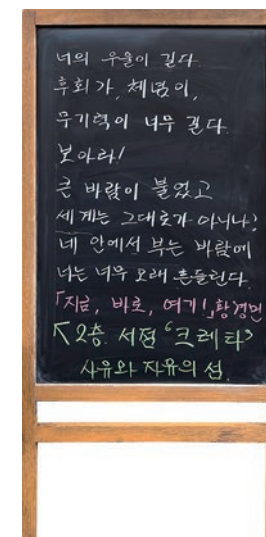


2

1, 2 독립서점 크레타 내부
3 독서토론이 이뤄지는 테이블



3



매일 새로운 문장으로 채워지는 크레타의 입간판

책과 함께 자유로운 삶을 향하는 곳

크레타는 전포동의 골목상권이 촘촘히 잘 조성되어 있는 '전포동구길'에 자리 잡은 작은 독립 서점으로 14년 동안 300회 이상의 독서모임을 진행한 독서모임 전문가가 운영하고 있다. '크레타'는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의 배경이 되는 섬이며, 작품 속 주인공인 조르바는 '자유로운 인간'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한다. 크레타는 함께하는 책과 사람들을 통해서 개인이 소중한 사색의 시간을 사유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운영되고 있다.

매일 바뀌는 문장 입간판

크레타는 매일 아침마다 강동훈 대표가 직접 선정한 책의 문장들을 기록하는 '문장 입간판'을 통해서 다양한 책의 매력적인 문장들을 소개하고 있다. 서점 앞에 놓인 입간판을 보고 서점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많다고 할 정도니 입간판이 크레타만이 가진 특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점 내부에는

도서들이 눈에 잘 띄도록 서가에 잘 진열되어 있다. 강동훈 대표가 직접 셀프, 리딩, 브랜딩, 비즈니스, 로컬, 스페셜 등의 기준으로 나누어서 책을 큐레이션 하니 그것을 참고해도 되고, 추천을 요청하면 강동훈 대표가 직접 책을 추천해주기도 한다.

다양한 만남과 소통

크레타에서는 독서모임 커뮤니티, 리더교육,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와 관련된 다양한 만남도 즐길 수 있다. 크레타를 방문하여 책과 함께 사색에 잠기고 그 사색을 통해 얻은 영감과 생각들을 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이어질 독서모임을 위해 맞춤형 테이블을 정중앙에 배치되어 있어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책과 함께 소통을 이어나간다고 한다.

서점 주인이 원하는 책 한 권과의 우연한 만남,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간의 지적인 소통과 정서적 풍요로움을 주는 공간인 전포동의 작은 섬 '크레타'에서 매주 다양한 독서모임과 북 토크, 작가와의 만남을 즐겨보는 것도 반복되는 일상 속 새로운 즐거움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

크레타를 방문한 많은 사람들의 기록들



아시아 속 작은 유럽, 마카오에서 꼭 해야 할 7가지

글 사진_ 문철진 여행작가

중국에 속한 곳이지만 골목으로 들어가면 엉락없는 유럽이다. 400년 넘게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은 영향으로 마카오에선 동양과 서양이 동시에 출몰한다. 아시아 속 작은 유럽이라는 수식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포르투갈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건물들이 도심 곳곳에 즐비하다. 부산 영도 면적의 두 배 정도에 불과한 좁은 땅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30개나 밀집해 있다. 초특급 리조트에서 즐기는 화려한 카지노 투어와 다양한 쇼,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화려한 야경, 동양과 서양의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매캐니스 음식 탐험은 마카오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부산에서 비행기로 3시간 30분이면 도착하는 마카오는 주말 이틀만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짧지만 굵게 마카오를 즐길 수 있도록 마카오에서 꼭 해야 할 7가지를 소개한다.



01 '세나도 광장'에서 마카오 여행 시작하기

마카오 여행은 세나도 광장에서 시작된다. 유럽풍 건물 사이로 물결무늬 타일이 펼쳐진 세나도 광장은 마카오의 상징과도 같다. 광장 주변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건축물들이 즐비하다. 광장 중앙에 세워진 분수대에는 교황 자오선이 그려진 지구본이 있다. 교황 자오선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식민지 쟁탈전을 중재하기 위해 교황이 그은 영토 경계선으로 서쪽은 스페인, 동쪽은 포르투갈 땅으로 구분했다. 마카오의 아픈 역사를 보여주는 조형물이다.



1,2 세나도 광장

02 '성 바울 성당의 유적'에서 고풍스러운 야경 즐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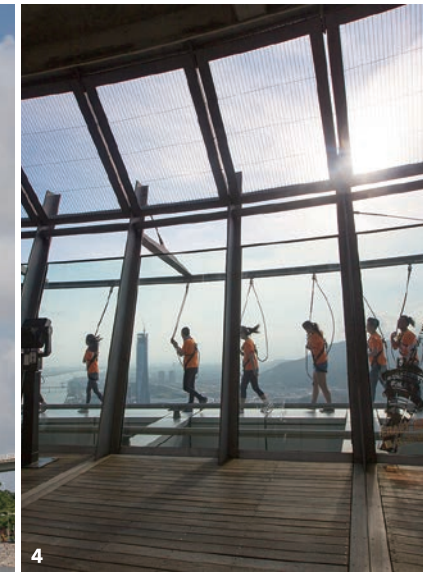
세나도 광장 안쪽으로 10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마카오의 랜드마크인 성 바울 성당의 유적을 만나게 된다. 1644년에 완공된 성 바울 성당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성당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화재로 건물 대부분이 소실되고 지금은 성당 전면부와 계단 등 일부만 남아 있어 성당이 아니라 유적으로 불린다. 계단 위에 우뚝 솟은 벽면이 전부이지만 여행자들은 주저 없이 마카오 최고의 명소로 손꼽는다. 해질녘 어둑해지는 하늘 아래 노란 불을 밝힌 성 바울 성당의 유적은 마카오 여행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름답다.



성 바울 성당의 유적



3



4

3 마카오 타워
4 마카오 타워 스카이워크

03 '마카오 타워'에서 스릴만점 액티비티 해보기

하늘 높이 우뚝 솟은 마카오 타워는 마카오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다. 높이는 무려 338m. 꼭대기 전망대에 오르면 마카오 풍경이 창밖으로 시원스레 펼쳐진다. 해질 무렵에 가면 마카오의 멋진 일몰과 야경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 색다른 경험을 원한다면 짜릿한 액티비티에 도전해 보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233m에서 뛰어내리는 번지점프를 비롯해 외부 데크를 따라 걷는 스카이워크, 338m 탑의 최상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마스트클라임 등 스릴 넘치는 액티비티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Macao



마카오 카지노

04 화려한 불빛으로 유혹하는 초대형 카지노에서 짜릿한 밤 보내기

마카오 경제의 중심은 카지노다. 1934년 마카오에 카지노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마카오 경제는 카지노 산업과 함께 성장해 왔다. 카지노의 도시에 왔으니 하룻밤 정도는 카지노 구경을 해봐도 좋을 터. 돈을 따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보자. 그랜드 리스보아, 베네시안, 윈 팰리스 등 초대형 카지노 호텔들은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운하를 호텔 속으로 옮겨 놓는가 하면 휘황찬란한 분수쇼와 다채로운 공연, 엄청난 규모의 쇼핑몰 등으로 관광객들을 불러 모은다.



1 그랜드 리스보아 호텔
2 베네시안 마카오 호텔



05 입안에서 살살 녹는 마카오 에그타르트에 감탄하기

에그타르트는 달걀로 만든 빵이다. 페이스트리 속에 달콤한 커스터드 크림을 넣어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디저트다. 포르투갈 리스본의 유서 깊은 수녀원에서 처음 만들어 오늘날 포르투갈의 대표 디저트로 자리매김했다. 포르투갈의 오랜 지배를 받은 마카오에서도 에그타르트를 흔히 먹을 수 있는데, 그랜드 리스보아 호텔 근처의 '마가렛츠 카페 이 나타(Margaret's Cafe e Nata)'의 에그타르트가 손에 꼽힌다. 가게 앞은 늘 대기 손님들로 북적여 30분 이상 기다리는 건 예사다. 하지만 갖 구워낸 에그타르트를 한입 베어 무는 순간 기다림의 고통은 달콤한 환희로 변한다.

3 마가렛츠 카페 이 나타
4 에그타르트



윈 팰리스 분수쇼

06 라스베이거스가 부럽지 않은 화려한 분수쇼 구경하기

'윈 팰리스'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황제 스티브 윈 소유의 윈 리조트가 마카오에 두 번째로 세운 카지노 호텔이다. 리조트 전체가 꽃을 테마로 꾸며졌고 박물관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보물들과 예술 작품들을 곳곳에 배치해 어느 럭셔리 리조트와 다른 격조와 품격을 느낄 수 있다. 리조트 마당에서 20분 간격으로 펼쳐지는 화려한 분수쇼는 윈 팰리스를 더욱 특별한 공간으로 만든다. 음악과 조명에 맞춰 춤을 추는 시원한 분수의 향연은 마카오 여행의 색다른 추억으로 기억될 만하다.



07 파스텔 골목길 따라 유럽 감성에 풍덩 빠져보기

베네시안, 갤럭시, 콘라드 등 초특급 호텔이 밀집해 있는 코타이 스트립 한쪽에 숨어 있는 작은 마을, 타이파 빌리지.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예쁜 건물들이 숨었다 나타나기를 반복한다. 유럽의 어느 소도시를 걷고 있는 것 마냥 이색적인 분위기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게 만든다. 마카오 사람들의 일상을 만날 수 있는 소박하면서도 정감 넘치는 풍경도 놓칠 수 없다. 마치 미로처럼 이어지는 파스텔 빛 골목길을 따라서 유유자적 걸어보자. 마카오 여행에서 가장 감성적인 장면으로 남을 거라 장담한다. 📍



5, 6 타이파 빌리지

투우장의 황소 같은 기업가 정신 <람보르기니: 전설이 된 남자>

글_ 김은정 영화의전당 시네도스트·영화평론가



Movie Info
개봉 2023.08.23.
등급 12세 관람가
장르 드라마
국가 이탈리아
러닝타임 97분

제1막 꿈 <람보르기니: 전설이 된 남자>는 총 3막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보잘것없는 농부의 아들이 기업가로 변신하게 된 페루치오의 꿈을 보여준다. 2차 세계대전 직후, 군대에서 제대한 페루치오는 고향 이탈리아 첸토로 돌아온다. 그의 가족 모두는 농장에서 일했는데 장남 페루치오는 농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아버지는 쓸데없는 데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조언하지만, 페루치오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꾀다. 당시 농장에서 사용되던 것보다 크기가 조금 더 작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저렴한 트랙터를 만든다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 것이다. 이후 그는 낡은 트랙터를 구매해 부품 하나하나의 개조를 거듭하며 마침내 새로운 트랙터 제작에 성공한다. 람보르기니의 출발은 트랙터 제조사였다. 오늘날 우리가 떠올리는 슈퍼카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페루치오의 도전은 그가 훗날 만들어 내는 고속 슈퍼카를 닮았다. 세상의 변화를 알아보는 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강력한 추진력이 농부였던 그를 기업가로 변신시킨다.

가슴속에 당신만의 드림카가 있는가. 바야흐로 드림카 전성시대. 성능과 디자인, 무엇 하나 놓치지 않는 자동차를 도로 위에서 종종 만나게 된다. 그리고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드림카를 넘어 슈퍼카로 눈을 돌린다. 람보르기니는 슈퍼카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호명되는 이름이다. 그런데 람보르기니는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바비 모레스코 감독의 <람보르기니: 전설이 된 남자>(2023)는 람보르기니의 설립자 '페루치오 람보르기니'가 어떻게 회사를 세우고 세계 최초의 슈퍼카를 만들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페루치오가 가졌던 한계와 상처, 야망과 꿈, 그리고 기업가로서 그의 도전과 혁신을 엿보게 한다. 신년을 맞은 우리에게 어떤 내일로 나아갈 것인지 생각하게 하는 영화다.



사진출처: (위)누리픽처스

제2막 전성기 이후 페루치오는 꽤 큰 규모의 트랙터 제조사를 운영한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꿈을 이룬 이때를 전성기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영화는 트랙터 제조업에서 승승장구하는 페루치오의 모습은 거의 보여주지 않는다. '전성기'라는 부채하에 펼쳐지는 내용은 그의 오기에 가까운 새로운 시도다. 자동차 수집광인 페루치오는 당시 이탈리아의 최고 자동차라 불린 페라리를 몇 대나 소유하고 있었다. 페라리 소유주로서 그의 유일한 불만은 변속기의 잦은 고장이었다. 그는 개선을 요구하는 조언을 하려고 호기롭게 페라리의 사장 '엔초 페라리'를 만나러 간다. 그런데 엔초 페라리는 일개 트랙터 제조사 사장인 페루치오를 무시한다. 이에 자극받은 페루치오는 페라리를 능가하는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선언한다. 이번에도 그의 도전은 '터무니없는 꿈'이라고 비난받는다. 페라리와 마세라티 등 최고의 자동차사 출신 전문가들을 스카우트하고 자신의 상상과 비전을 실현하려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만을 듣는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페루치오는 자동차의 디자인, 엔진 배열 방식, 소재 등 기존의 모든 것을 새롭게 접근한다. 남들이 하지 않은 방식, 그래서 어쩌면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이번에도 끈질기고 과감하게 밀어붙인다. 슈퍼카 개발을 시작하고 1년여 지난 1964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350GT를 선보이고, 몇 년 후 최초의 슈퍼카란 칭호를 받는 미우라를 발표한다. 혁신의 도전이야말로 기업가의 가장 중요한 자질임을 페루치오는 증명한다.

제3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후 벌어진 람보르기니와 페라리의 경쟁은 잘 알려져 있다. 경쟁과 성공은 흥미로운 영화적 소재인데, <람보르기니: 전설이 된 남자>는 그보다 더 중요한 화두로 영화를 마무리한다. 고독의 순간, 페루치오는 자동차 경주 같았던 삶을 되돌아본다. 인생에서 많은 것을 이룬 그가 곱씹어보는 질문은 '가치 있는 것인가?'이다. 이 질문에 정답은 없다. 다만 우리를 향하는 질문임은 분명하다. 🚗

‘예지’의 리더라도 괜찮습니다

노자의 경영 컨설팅

글_한귀은 경상국립대학교수·작가

재래시장 노포식당을 가끔 찾는다. 그곳은 마치 과거 속에 있는 것 같다. 오래지 않아 사라질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고, 여전히 따뜻한 밥을 대접 받을 수 있어 감사하기도 하다. 이 식당이 없어지면 얼마나 허전할까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마저 주제넘은 일인 것 같아 그냥 밥 한 그릇을 더 정성스럽게 먹는다.

‘님아 그 시장을 가오’는 백종원의 재래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 그는 마치 먹성 좋은 순례자처럼 재래시장을 찾아다녔다. 노포식당 사장님들은 백종원을 보고 반가워하면서도 부끄러워하셨다. 그들은 백종원에게 “지적해 주세요”라고 수줍게 말을 건네기도 했다. 백종원은 더 수줍게 “지적하러 온 거 아니에요”라며 겸연쩍어했다. 노포 사장님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사장님의 캐미는 어색하고 귀여웠다. 백종원은 음식값을 받지 않으려는 사장님을 향해 오히려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 아이스크림 사드시라며 부리나케 식당을 빠져나오기도 했다. 매번 백종원의 발걸음은 무거운 듯 따뜻했다.

‘님아 그 식당을 가오’엔 지역을 미화하는 아름다운 풍경 쇼트가 드물었다. 만약 풍경을 미화했다면 오히려 진정한 로컬리티는 훼손됐을 것이다. 백종원의 카메라엔 오히려 인적 없는 낡은 시장 풍경이 자주 담겼는데, 그 풍경이 삭막하거나 비관적이지도 않았다. 그곳엔 ‘삶’이 있었기 때문이다.



백종원은 시장 노포를 찾고, 그 노포의 서사를 조심스럽게 읊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실질적인 ‘경영’을 추진했다. ‘예산시장 프로젝트’는 이렇게 시작됐다. 예산시장은 현대화의 방향으로 리모델링되지 않았다. 백종원은 확실적인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오히려 경계했다. 그는 재래시장을 컨설팅하면서 이윤보다 문화와 공동체에 더 집중하는 듯 보였다. 그리고 문화와 공동체에 집중하면 이윤이 더 발생할 거라는 계산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경영과 문화의 시너지를 일으키는 리더였다.

노자의 『도덕경』 17장엔 ‘리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太上不知有之(태상부지유지)

최상의 도는 사람들이 그 존재조차 모르는 것이고

其次親而譽之(기차친이예지)

그다음은 사람들이 가까이하고 칭송하는 것이고

其次畏之(기차외지)

그다음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고

其次侮之(기차모지)

그다음은 사람들이 멸시하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리더는 그 아랫사람이 리더가 있다는 것만 아는 정도의 사람이고(有之), 그다음은 친하여 칭송받는 사람(譽之), 그다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畏之), 그다음은 욕먹는 사람이다(侮之).

노자가 말한 최상의 경지인 유지(有之)의 리더는 ‘있는 듯, 없는 듯’ 기업을 이끈다. 직원을 통제하기보다 직원이 자신의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직원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게 장려한다. 성취 공과 또한 리더 자신에게 환원시키지 않고 직원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직원이 자아효능감을 느끼게 한다. 직원의 성실함과 창의성은 더 고조될 수밖에 없다.

백종원은 분명 ‘유지’의 리더는 아니다. 그는 ‘예지(譽之)’의 리더다. 백종원은 여러 사람에게 칭송될 뿐만 아니라 종종 자찬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과시’로 보이지 않는 것은 그가 끼치는 선한 영향력 때문일 것이다.

그의 얼굴은 그 자체로 우리 시대 아이콘이다. 그는 이 아이콘을 십분 활용한다. 더본코리아 모든 브랜드의 얼굴은 백종원이다. 백종원 만큼 자기 얼굴을 브랜드 대표 이미지이자 아이덴티티로 삼는 CEO가 있을까. 거리로 나가면 백종원 커피, 백종원 밥집, 백종원 중국집, 백종원 우동집, 백종원 피자집 등등 그의 얼굴이 간판, 입간판 할 것 없이 사진으로, 캐리커처 이미지로 눈에 자주 들어온다.

노자가 백종원을 만난다면 뭐라고 조언할까. 노자의 성향상 무슨 말을 직설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굳이 백종원이 가르침을 원한다면 노자는 『도덕경』 2장에 나오듯, “말하지 않으면서 가르침을 행하는” 화법으로 뭔가를 전달할지도 모른다. ‘무위의 컨설팅’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노자는 백종원이 ‘유지’의 리더가 아니라고 나무라지는 않았을 것 같다. ‘예지’의 리더도 귀하다. 무엇보다 노자는 포용력 있는 열린 철학자다. 노자는 백종원의 인플루언서이자 엔터테이너의 모습에 말없이 웃어 주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2024년이 밝았다.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가. 혹은 어떤 리더 밑에서 일하고 싶은가. 예지의 리더라도 괜찮다. 유지의 리더라면 물론 더더욱 괜찮다. 🌱

WELCOME BCCI STORY OF 캡틴장



by 웹툰작가 배민기



2023. 12. 11. Monday

이준승 부산광역시 신임 행정부시장 접견
부산의 미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2023. 12. 12. Tuesday

KBS 연말이웃돕기 성금모금
우리 지역사회가 나눔을 통해 더욱 따뜻해지기를 기원합니다.



2023. 12. 12. Tuesday

제25차 매경 원아시아포럼
아침부터 좋은 강연 듣고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2023. 12. 12. Tuesday

산업은행 에어부산 분리매각 협조 요청문 전달
지역 거점항공사 에어부산이 부산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2023. 12. 22. Friday

동아대학교 총동문회 정기총회 동아인의 밤
동아인들이 이렇게 다함께 모이니 참 좋습나데이^^



2024. 1. 2. Tuesday

부산상공회의소 2024년 시무식
새해에도 부산 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혁신해나갑니다.



2023. 12. 21. Thursday

2023년 임직원 송년회
부산상공회의소 임직원 여러분을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 1. 1. Monday

2024년 새해 맞이 '시민의 종' 타종식
청룡의 해를 맞이하는 시민의 종을 다함께 울려봅시다.

2024년 갑진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지역경제를
미래로 이끌고 가는 핵심 축이라는 책임감과
회원기업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새해에도 푸른 용의 기개처럼 용감한 도전을 통해
부산 경제의 새로운 비상을 이뤄나가겠습니다.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북항 재개발 사업



부산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해양수도이자 동북아를 대표하는 해양도시다. 해양도시답게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항은 글로벌 주요 허브 항만으로 꼽히며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새해를 맞이한 해양도시 부산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뽑히는 사업 중 하나로 부산항만공사가 추진하는 북항 재개발 사업이 있다.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미래를 열어줄 북항 재개발 사업의 의미를 짚어본다.

글로벌 무역 거점 부산항

1876년 개항 이후 부산항은 대한민국 최초의 무역항으로서 국내 수출입 화물과 세계 각국의 환적화물을 처리해오며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왔다. 현재 부산항은 세계 2위 환적항만이자 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3대 간선항로에 위치해 있는 부산항은 150여 개국 항만을 잇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동북아 최대 환적 중심항인 신항, 인프라 아시아 선사 거점항만인 북항, 국내 최대 수산물 거점항인 감천항 및 다대포항 등 특화된 항만시설을 갖추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러한 부산항의 운영·관리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4년 1월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 1910년대 부산항(위), 1940년대 부산항(아래)

1876년 개항한 북항의 변화

1876년 부산포가 개항한 이후 일제강점기 수탈을 위한 전진 기지로서의 아픔을 겪으며 한국전쟁 당시 UN군 병참기지로 사용되었던 북항은 근대화의 물결로 1978년 컨테이너 터미널을 개장하고 2000년 세계 물동량 3위를 달성하는 등 국내 최대 무역항이었다. 이후 북항은 급변하는 세계 물류 경쟁 속에 2006년 초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신항이 개장하며 기능이 쇠퇴하게 됨에 따라 유희화되는 북항에 항만 기능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2007년부터 북항 재개발 사업을 확정하고 2008년 착공하여 북항 재개발을 단계별로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



해양문화 지구에 들어서 마린나 시설(1단계)



●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전체 조감도



하늘에서 본 북항재개발 1단계 부지

새로운 워터프론트 해양문화공간으로의 변신

쇠퇴한 북항 기능을 재정비해 단절되었던 수변공간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주고자 시작된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은 북항을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시켜 부산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한 부산의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추진되었다. 1단계 사업은 쾌적한 미래형 수변도시 조성 및 미래형 해양 관광 산업 등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유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2022년 조성완료된 153만㎡ 부지는 국제여객 부두와 복합항만지구, 복합도심지구, 해양문화지구, 상업·업무 지구, IT·영상·전시지구, 마리나 시설, 오페라하우스, 친수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성된 부지에는 각 지구별 특화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며, 오페라하우스 등 일부 시설은 현재 건설 중에 있다.

● 부산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 전체 조감도

국제교류 중심지로 조성될 자성대 일원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은 자성대 부두 재개발, 부산역 및 부산진역 철도시설을 재배치하여 원도심과 연계한 상생형 복합 경제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구와 중구 일원 228만㎡ 구역에 2030년까지 4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공원 기반시설 및 상업·주거·숙박·전시시설 등을 조성해 북항을 마이스 및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1단계 사업이 항만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면 2단계 사업은 유희 항만, 철도시설 등을 포함한 도심과 맞닿은 지역을 개발할 예정이다. 2단계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 컨셉으로 국제 금융, 해양 관련 업무 시설, MICE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원도심과의 상생 발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자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시설 조성 방안도 구상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개방된 매력적인 수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과 정주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장소로 개발될 예정이라고 한다.



국제교류 비즈니스 중심지가 될 자성대 베이(2단계)



부산진테라스(2단계)



MICE지구(2단계)



● 북항 재개발이 완료된 미래 모습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북항

2단계 사업이 2030년까지 완공되고 나면 3단계 사업으로 7-8부두와 우암부두, 우암CT, 감만과 신감만부두를 포함하는 약310만㎡을 개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에서 보듯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북항 재개발은 항만 공간의 재창출을 넘어 부산이라는 도시 전체의 경관을 크게 바꿔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최근 정부와 부산시가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였다. 뉴욕, 두바이, 싱가포르 같이 사람과 기업, 재화가 제약없이 이동 가능하며,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국제비즈니스 도시로 성장하기에는 북항 지역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컨소시엄이 2단계 사업을 2024년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인만큼 현재의 사업계획들을 더욱 내실있게 보완하여 북항을 세계인들의 뇌리에 각인 시킬 부산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StartUP 지역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소개합니다

화훼 시장의 새로운 종합플랫폼으로 혁신하는 ‘플라시스템’



플라시스템은 전국 1,500여 화훼농가와 꽃집을 플라워플랫폼 서비스로 묶어 하나로 연결하는 '전국 플라워센터'를 기반으로,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다양한 B2B/B2C 화훼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바일청첩장 및 모바일부고장 알림서비스 플랫폼 기업과 협업하며 고객들이 쉽고 간편하게 화훼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지역의 스타트업이다.

- 1 플라시스템 사옥 외관
- 2 플라시스템 김태진 대표



2023년 9월 플라시스템 신사옥 개소식

플라시스템의 도전과 성장

플라시스템 김태진 대표는 2011년 낡은 컨테이너에 PC와 전화기를 가져다 놓고 꽃배달 온라인쇼핑몰인 '꽃파는총각'을 런칭했다. 화훼유통구조를 혁신하여 거품을 뺀 가격으로 시중 소비자가격보다 30% 저렴한 가격에 화훼상품을 판매하였으며, '꽃파는총각'은 오픈마켓(옥션, 지마켓, 11번가) 1위 브랜드로 성장했다. B2C시장에서 확고한 기반을 다진 뒤 김태진 대표는 2013년 플라시스템을 법인전환 하고 B2B시장 공략에 나섰다. IT기반 플라워플랫폼인 '전국플라워센터'를 만들고, 전국 단위의 자체 꽃배달 서비스망을 구축했다. 전국 1,500여 회원사를 가맹회원으로 신속하게 유치하며 전국 어디든 3시간내에 신속배달이 가능한 배송망을 구축했다. 이후 연평균 40만건의 주문을 처리하는 기업으로 급성장 하였다.

서비스 확장을 통한 사업다각화에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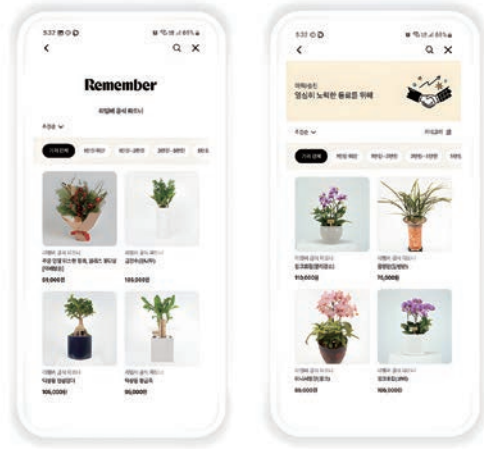
김태진 대표는 '전국플라워센터'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자, 사업다각화를 위해서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였다. 바로 꽃배달 창업솔루션인 '꽃파는사람들(현.플라체인)'의 런칭이었다. 누구나 쉽게 무자본으로 꽃배달쇼핑몰을 창업 할 수 있도록 전국대표번호 및 디자인물등을 지원하는 노스톱 창업솔루션을 제공하였다. 부업 및 창업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전국에서 성황리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해마다 많은 사업자들이 가입을 하였고 가맹사업자가 2,000명을 넘어 설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주)플라시스템은 또 다른 변신을 시도하였다. 바로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화훼상품을 주문하기 전에 고객이 평소 자주 접하는 비즈니스 웹/앱에서 바로 화훼주문이 가능한 버튼을 탑재하는 'B2B 꽃배달 협업프로젝트'를 기획한 것이다. 이후 모바일부고장/모바일청첩장 알림서비스 플랫폼기업과의 협업을 늘려나갔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명함관리업인 리멤버에도 간편주문



플라시스템 협력사



B2B협업프로젝트 간편주문 프로세스



플라시시스템 리멤버 공식파트너로 협업 진행 화면

기능을 탑재하여 리멤버 앱을 사용하는 중에 언제든지 간편하게 결제하고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플라시시스템은 이처럼 고객중심의 간편주문 니즈를 재빨리 파악하여 다양한 협력사들과의 B2B협업프로젝트를 시도하며 화훼산업의 혁신과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투자금 0원에서 일궈낸 지금의 플라시시스템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창업 초기 7년 동안의 Death valley를 건너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김태진 대표는 매우 특이한 스타트업 성공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바로 투자금 0원으로 지금까지 플라시시스템을 키워 온 것이다. 투자금 없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창의력과 혁신 덕분이었다. 기존 화훼시장의 가격틀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서 고객의 소비만족도를 올리고 가격의 거품을 걷어낸 혁신으로 인해 ‘꽃파는총각’은 꾸준한 성장과 단골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플라제인’이나 ‘꽃배달 협업프로젝트’와 같이 창의적인 생각의 전환으로 매순간 화훼시장을 혁신해 나간 것이 투자금 없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꽃파는총각’의 가격인하 정책이, 가격측면에서의 고객만족도를 향상 시켰다면, B2B 꽃배달 협업프로젝트는 고객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기술혁신으로 고객만족도를 향상 시켰다. 이러한 고객중심의 경영철학으로 플라시시스템은 화훼시장의 선두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었으며, 투자금 없이 자체 비즈니스 모델의 시장구매력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었다.

플라시시스템 주요수상 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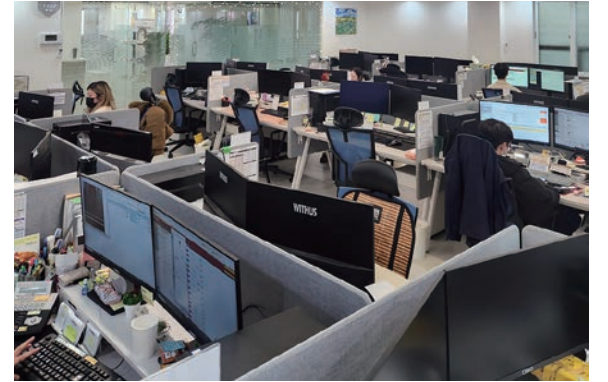
- 2015. 12. 12. 부산상공회의소 부산벤처기업 신기술혁신상 수상
- 2016. 12. 20 부산광역시 벤처기업인상 수상
- 2017. 05. 31.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선정
- 2018. 04. 09. 부산광역시 비즈니스서비스 강소기업 선정
- 2018. 09. 24.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우수기업인' 선정
- 2019. 06. 03. 부산광역시 대표창업기업 브라이트클럽&밀리언클럽 선정
- 2019. 12. 10 창업활성화분야 중소기업부 국무총리 유공포상 수상
- 2021. 12. 15. 부산광역시 벤처기업육성 벤처인의 날 유공포상
- 2023. 12. 19.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분야 중소기업부 장관상 수상



2021년 벤처인의 날 유공포상 수상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지향하는 기업으로

플라시시스템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고객들에게 혁신적인 화훼상품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최근 IT개발인력을 추가채용하고 끊임없이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 시킬수 있는 기술개발과 혁신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고객의 간편결제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고 언제 어디서든 화훼상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의 비즈니스모델과 B2B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플라시시스템은 사회환경 보호 및 사회공헌을 통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플라시시스템은 다양한 친환경화환 개발을 시도하면서 버려지는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회공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아동복지협회 아동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삼겹살 파티를 매년 주기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기부활동을



플라시시스템 고객만족센터 모습

통해서 지역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고, 플라시시스템의 선한 영향력으로 지역사회에 성숙한 공동체 가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고객을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 개발

향후 플라시시스템은 챗봇시스템 및 AI주문시스템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보다 간편하고 손쉽게 화훼농가와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2024년에는 보다 많은 기업들과 협업을 늘려나 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내 최고의 IT플라워테크 플랫폼기업으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

- 1 플라시시스템 감만종합사회복지관에 에코키트 기부
- 2 플라시시스템과 강민호 선수가 아동들을 위해 마련한 삼겹살 파티



2024년 10대 소비트렌드 전망

글_ 최지혜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끝나지 않는 전쟁과 극한기후, 그리고 전례 없는 고물가로 인해 소비 심리의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불확실성'이다.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우리는 이 불확실성의 허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에서 발표한 10대 키워드로 시장의 흐름을 예측해보자.

01 분초사회

시간 효율성을 극도로 높이려는 트렌드를, 모두가 분초(分秒)를 다투며 살게 됐다는 의미에서, '분초사회'라고 명명한다. 분초사회에서 우리는 '시간지상주의'를 떠받들며 시간의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 ① 돈보다 시간을 중시하고, ② 사용 시간 단위를 조각내며, ③ 여러 일을 함께 처리하고, ④ 일단 결론부터 확인한 후 일을 진행하며, ⑤ 실패 없는 쇼핑을 바라면서 극한의 시간 효율을 추구한다. 이제 시간이 돈만큼, 아니 돈보다 귀해졌다.

02 호모 프롬프트

프롬프트란 생성형 A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을 포괄한다. 호모 프롬프트는 자신만이 보유한 인간 고유의 창의성을 더욱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각종 AI와의 '티키타카'를 통해 인공지능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생성형 AI 시대를 주도하려면 사색과 해석력을 겸비해야 한다. AI시대에 필요한 것은 가장 인간적인 아닐로그 역량이다.

학력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석사

주요경력

서울대에서 소비자 심리의 이해와 소비트렌드 분석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삼성·LG·아모레퍼시픽·SK·코웨이·CJ 등 다수의 기업과 소비자 트렌드 발굴 및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현재 동아 비즈니스 리뷰(DBR) 객원 편집위원, 인천시 상징물 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 서울대 소비자 심리의 이해와 소비트렌드 분석 과목 강의
- 삼성전자 임직원 교육(2018 ~ 2021)
- 삼성전자 경영혁신센터 주최 '2021 SEC Innovation Fair' 강연
- KEB 하나은행(본점) 직원대상 '트렌드 코리아(2019 ~ 2022)
- 2021 ICCA(국제컨벤션협회, International Congress and Convention Association) 기조연설
- 머니투데이 서울 퓨처포럼 2021 강연
- 이마트 에브리데이 신입사원 교육

저서

- 대한민국 외식업트렌드 Vol.1
- 더현대서울 인사이트
- 트렌드코리아 2014 ~ 트렌드코리아 2024 공저자



03 육각형인간

외모·학력·자산·직업·집안·성격·특기 등 모든 측면에서 약점 없는 사람을 선망하고 질시하며, 좌절감을 느끼는 트렌드를 '육각형 인간'이라고 한다. 육각형 신드롬은 소셜미디어의 영향이 크다. 완벽한 라이프스타일을 뽐내는 전 세계의 동년배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도 것처럼 완벽한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유형무형의 압박이 강해진 것이다. 육각형인간은 완벽을 지향하는 사회적 압박을 견뎌야 하는 젊은이들의 활력이자 절망이면서 하나의 놀이다.

04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이제 가격은 하나가 아니다. 같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버라이어티'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이라는 키워드를 제안한다. 성공적인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을 선보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가격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가격 전략의 힘과 한계를 모두 인지하면서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가격 차별화를 선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05 도파밍

새롭고 재미있는 것을 경험할 때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을 모으려는 요즘 사람들의 행동을 '도파밍'이라고 한다. 도파밍은 도파민(dopamine)과 파밍(farming)을 결합한 말이다. 파밍이란 게임 용어로서 플레이어가 게임 캐릭터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작물을 수확하듯 아이템을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도파밍은 즐거움을 가져다줄 수 있는 도파민이 분출되는 행동이라면 뭐든 시도하고 모아보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젊은 세대의 즐거움 추구성향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06 요즘남편 없던아빠

최근 30대와 40대 초반 밀레니얼 세대 남성들의 가정생활과 성 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혼인 연령이 높아 지고 생애미혼율도 치솟는 가운데 결혼이라는 어려운 길에 들어 서기를 선택한 '요즘남편', 그리고 기성세대에게는 낯설기 그지 없는 육아 마인드를 갖춘 '없던아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더 많이 결혼하고, 더 쉽게 아이를 낳아 기르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적·사회적 노력이 주목 받을 것이다.

07 스펀오프 프로젝트

스펀오프는 주로 콘텐츠산업에서 '어떤 특정한 원작에서 파생되어 나온 작품'을 지칭한다. 이러한 스펀오프의 개념이 브랜드, 기술, 조직 관리, 그리고 개인의 경력 개발 영역으로 확장하는 트렌드를 '스펀오프 프로젝트'라고 부르고자 한다. 격변하는 트렌드에 대응하고 성장해나가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한, 스펀오프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더 역량 있는 인재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프로젝트로서 더욱 각광받게 될 것이다.

08 디토소비

과잉의 시대다. 정보 탐색, 대안평가 등의 의사결정 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특정 사람·콘텐츠·커머스 등 특정 대리체(proxy)가 제안하는 선택을 추종하는 소비를 '디토 소비'라고 명명한다. 디토소비의 확산은 앞으로 브랜딩, 유통 전략은 물론 비즈니스 모델의 형성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단지 제품력만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의 철학·관점·취향을 담은 '시그니처' 상품이나 브랜드가 중요해질 것이다.

09 리퀴드폴리탄

이제 도시는 멈춰있지 않다. 지역만의 콘텐츠가 흐르고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사람들이 이동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축적하는 새로운 변화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런 변화를 '리퀴드폴리탄(liquidpolitan)'이라고 명명한다. 이제 100개의 도시는 100개의 정체성을 가진 개성 있는 리퀴드폴리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각자 다른 매력으로 다양성을 포용함으로써 가능성을 끊임없이 실험하는 작지만 강한 리퀴드폴리탄이 많이 등장하기를 기대한다.

10 돌봄경제

최근 돌봄의 개념이 극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장애가 없더라도 누구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가족이 아니더라도 누구든 돌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돌봄이 단순히 복지 차원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에서 '돌봄경제'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돌봄경제는 정책적·산업적 파급효과를 가지는 현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이슈가 될 것이다. 📌

보보와 함께 알아보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그림 망카우씨
mongcowc@gmail.com



부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추진

지난해 12월 6일 정부는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부산 시민을 격려하고자 부산항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남부권의 새로운 혁신 거점으로서의 부산 발전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날 간담회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던만큼 글로벌 허브도시조성 특별법을 통해 그려질 부산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lobal BU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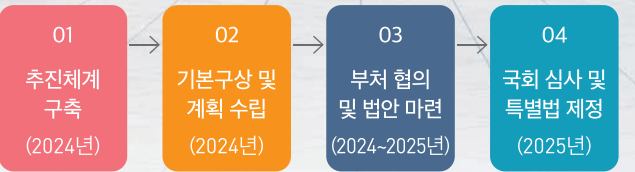
부산을 규제 프리존으로

'글로벌 허브도시'는 인력, 상품 등의 글로벌 이동과 기업 경영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 완화와 각종 특례를 접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특히 부산 전역을 규제 프리존으로 만들어 국내 및 해외 투자를 활발히 유치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경제, 금융, 관광, 도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위해 세제 혜택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하여 부산의 도시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와 같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부산이 싱가포르, 뉴욕 같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세계인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은 이미 동북아 물류 거점이라는 지정학적 이점과 인구 규모, 산업적인 자산이 축적되어 있고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도시 브랜드가 급성장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정부와 부산시는 부산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절차



구상부터 실행까지 많은 준비 필요해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은 아직은 구상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부산시는 내년 중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한 뒤 2025년 법안 발의와 국회 통과를 통해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시도인만큼 특별법이 제대로 추진되어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규제 자율성을 확대하여 해외 관광객과 기업인이 한층 더 찾아오기 쉬운 도시가 되고, 도시 전체에 영어사용 편의성을 확대해 외국인 정주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해외 교육기관도 적극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시범은행 지구와 같은 규제 특례 제도를 활용해 전력반도체나 이차전지, 블록체인, 핀테크 같은 혁신 기술과 서비스 실증이 자유롭게 되면 기업 유입도 이전보다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준비와 함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이 순항을 이어가기를 기대해봅니다. 🇰🇷



지식의 창고

1

억만장자 12명의 비밀

자수성가 억만장자들의 통찰력과 비책은 무엇일까?

김정수 | 중앙경제평론사 | 18,000원



이 책은 전 세계 수많은 억만장자를 탄생시킨 부(富)와 성공에 관한 세계적 거장, 나폴레온 힐 전문가인 '나폴레온 힐 성공연구원' 김정수 원장이 쓴 책이다. 저자는 많은 사람과 긍정적인 삶의 가치를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책을 쓰고 명강의를 하는 것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어떤 좋은 이론이나 멋진 내용도 실제의 성과로 증명되지 않으면 공허하다는 원칙을 가진 그는 스스로 적용해본 자신의 주장 및 체험을 등장인물의 성공담과 함께 이 책에 녹여냈다. 이 책에 등장하는 12명은 세계적으로 핫한 인물들이다. 그야말로 면면이 화려하다. SF익스프레스 왕웨이 회장, 유사와 대표이사 유자와 쓰요시, 나이키 창업자 필 나이트, 워싱턴 스피리트 구단주 미셸 강,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스티븐 킹, 화빈그룹 엔빈 회장, 오픈AI 창업자 샘 올트먼, 룩소티카 델 베키오 회장, 미키모토 창업자 미키모토 고키치, LPGA 명예의 전당 멤버 안니카 소렌스탐, 자이언트 창업자 킹 리우, CNN 창설자 테드 터너 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다. 이 책은 한마디로 자수성가 억만장자들의 통찰력과 비책을 배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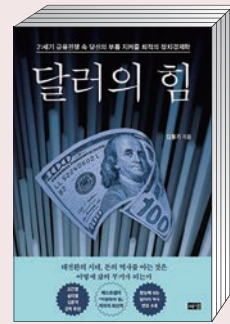
2

그린의 정신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그린 경제학

윌리엄 D. 노드하우스 | 에코리브르 | 28,000원

'그린'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하나는 나무나 식물 등의 자연을 의미한다. 또 하나는 현대 사회에서의 전염과 충동을 다루는 운동, 즉 그린은 그 자체로 생명을 지녔으며 개인의 행동, 기업, 정치 활동, 법률 등에 새로운 접근법을 부여한 사회 운동을 뜻한다. 그것은 현대 산업 사회가 어떤 위태로운 부작용을 지녔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최소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다루는 일련의 아이디어다. 기후 재앙과 팬데믹에서 들불과 기업의 불법 행위에 이르는 세계의 온갖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강력한 상호 작용들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야 한다. 탄소 배출과 기타 환경적 피해의 경우, 이는 책임 있는 이들이 제가 야기한 비용 전체를 계속 다른 것들, 이를테면 다른 사람, 다른 세대, 다른 생명체 등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경제 번영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시대 최대의 도전들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새로운 '그린 사고' 방법을 소개한다.



3

달러의 힘

21세기 금융전쟁 속 당신의 부를 지켜줄 최적의 정치경제학

김동기 | 해냄 | 33,000원

미국 연준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전 세계는 연준의 금리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왜 수많은 나라가 미국이라는 개별 국가의 금리에 이처럼 신경을 쓰는 것일까? 바로 미국이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이다. 기축통화는 세계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일 뿐 아니라 환율의 기준이 되기에 그 영향력이 막대하다. 전 세계인은 달러를 '금융 무기'로 휘두르는 미국 중심 경제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현대의 미국 패권 경제는 어떻게 형성됐을까. 이 책에서는 '달러'를 키워드로 미국 경제 패권의 형성 과정과 그 위력을 치밀하게 파헤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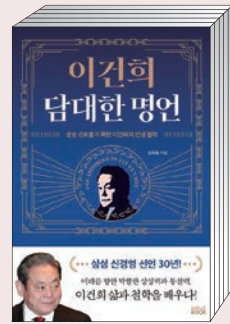
4

리더의 지혜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18가지 계명

윌리엄 H. 맥레이븐 | 미래지식 | 17,500원

각종 특수작전을 이끌며 현역으로 37년간 근무한 네이비 실로 '황소개구리' 칭호를 받은 책의 저자 맥레이븐 대장은 미국 특수작전사령부를 이끄는 진정한 리더이다. 그는 사담 후세인 체포 작전, 오사마 빈 라덴 급습 작전 등 세계적인 작전을 이끌며 리더로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예기치 않은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조직을 경영하고 이끄는 방법 및 단호하게 결정해야 할 순간과 그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 등을 해결하며 리더로서 깨달은 지혜를 이제는 많은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복잡하지는 않지만 절대 쉽지 않은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18가지 계명'을 정리해 특별한 조언을 전한다.



5

이견희 담대한 명언

삼성 신화를 이룩한 이견희의 인생 철학 삼성 신경영 선언 30년

김옥림 | 미래북 | 17,500원

오늘날 삼성을 말할 때, 이견희 회장을 떼어놓고 말할 수는 없다. 한 사람이 한 기업의 역사가 되었고, 신화가 되었다. 이견희 회장의 진가는 삼성의 역사를 써내려갔다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써내려갈 수 있는 역사의 토대를 구축했다는 데 있다. 그는 미래를 볼 줄 알았고, 사람을 볼 줄 알았다. 거기에서 비롯된 통찰력으로 오늘날 '위기의 승부사'이자 '불세출의 경영인'으로 기억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익숙한 브랜드, '삼성'의 신화를 쓰아 올리기까지 그가 새겼던 문장들, 그가 경영진들에게 숙제처럼 내던졌던 명언들은 경영인들이 새겨야 할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삶의 자세이다. 🔄

동아플레이팅(주)
희망 2024 나눔캠페인 1,100만원 전달



동아플레이팅은 12월 19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 2024 나눔캠페인'에 참여하여 성금 1,100만원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희망 2024 나눔캠페인'은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총 62일 동안 108억 6,000만원의 성금을 목표로 진행한다. 동아플레이팅은 고물가·고금리로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소외계층을 돕고자 이번 기부를 결심하게 되었다. 동아플레이팅의 기부금은 노인 요양 시설에 1,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100만원은 저소득 계층 연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동아플레이팅 이오선 대표는 "희망 2024 나눔캠페인 참여를 통해 이웃 사랑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NK부산은행
16회 연속 '교육메세나탑' 수상



BNK부산은행은 12월 15일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6회 교육메세나탑 시상식'에서 16년 연속 교육메세나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교육메세나탑 시상식'은 부산시교육청,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 대표 교육 기부 시상식이다. BNK부산은행은 올해 행복 장학금 전달, 동백어린이 미술대회 개최, 지역 고등학생 대상 온라인 학습 콘텐츠 등을 지원한 결과 교육발전과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기부를 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 지역에서 유일하게 2008년부터 16회 연속으로 '교육메세나탑'에 선정되었다. BNK부산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공헌사업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세정나눔재단
영산대 장학생 20명 선발 2,000만원 전달



세정나눔재단은 11월 28일 영산대 해운대캠퍼스 도광헌에서 '세정나눔재단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정나눔재단은 영산대 재학생 20명에게 총 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2011년 출범한 세정나눔재단은 세정그룹의 핵심가치인 인류에 공헌을 실현하며 장학사업, 후원사업, 성금 등으로 온정을 나누고 있다. 세정그룹은 인디안, 올리비아로렌, 웰메이드 등 브랜드로 친숙한 부산의 향토기업이자 국내외를 대표하는 패션 기업이다. 세정나눔재단 관계자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격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주변과 함께 살아가는 마음 따뜻한 인재로 성장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남부발전(주)
아동센터 에너지 효율화 주거개선 지원



한국남부발전은 12월 6일 부산 본사에서 재정 문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부산·안동지역 아동센터 30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를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한국남부발전은 이번 후원을 위해 법인카드 포인트와 동일 금액의 매칭그랜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마련된 후원금은 2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를 사용 중인 아동센터 30개소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남부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지·공공시설에서 다양한 에너지 연계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동화엔텍
'MARINTEC CHINA 2023' 전시회 참가



동화엔텍은 12월 5일 중국 상해에서 개최하는 'MARINTEC CHINA 2023' 전시회에 참가하였다고 밝혔다. MARINTEC CHINA 2023 전시회는 2년마다 개최되며 아시아 최대 조선해양산업 비즈니스 전문 전시회로 알려져있다. 동화엔텍은 중국 조선시장의 동향과 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동화 계열사의 제품과 기술력을 홍보하였으며 조선, 플랜트, 친환경 사업에 대한 미래 비전 및 기술력을 선보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전시회에서 동화엔텍은 향후 사업방향과 기술력을 다양한 고객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조선해양 기자재 해외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화승그룹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함께꿈틀' 6기 수료식

화승그룹은 12월 20일 부산사옥에서 부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청년기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화승 꿈틀 프로젝트 '함께 꿈틀' 6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료식은 수료증 수여를 비롯해 교육과정 및 성과 공유, 각 분야별 프로그램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함께 꿈틀'은 장애인, 저소득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화승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번 '함께 꿈틀' 프로그램은 화승 임직원 봉사자와 복지관 이용자가 1:1로 매칭돼 '함께 꿈틀 스마트팜 프로그램'과 '함께 꿈틀 포슬린아트 프로그램' 과정을 4개월간 함께 진행했다. 화승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사회공헌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영광도서

제34회 영광독서감상문 현상공모 시상식 개최



영광도서는 12월 16일 청목문화회, 목요학술회와 함께 '제34회 영광독서감상문 현상공모' 시상식을 부산진구 영광도서문화홀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매년 실시하는 '영광독서감상문 현상공모'는 지역의 대표적인 공모전이자 전국 최고의 독후감 공모전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윤환 대표와 BNK부산은행 김상훈 본부장, 부전동금융센터 이승우 센터장, 남송우 심사위원장(고신대 석좌교수)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모에는 초등부와 중고등부의 편수가 늘어나고 일반부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영광도서 김윤환 대표는 "올해로 34년째를 맞은 영광독서 감상문 현상 공모전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독서 소감을 전한만큼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독서감상문 공모전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주)골든블루

소외 이웃돕기 위해 후원금 2,000만원 기부



골든블루는 12월 28일 부산 센텀 사무소에서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후원금 2,000만원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골든블루는 2019년부터 NK아이빌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한마음학원에는 2020년부터 후원을 해오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생활 용품과 겨울철 방한 용품 구매와 원우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될 계획이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골든블루는 '사회로부터 얻은 이익은 사회로 환원하다'라는 경영 철학 아래 회사가 성장한 만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대선주조(주)

브랜드 이미지 제고 위해 경성대와 산학협력



대선주조는 12월 7일 경성대 누리소강당에서 광고홍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쟁PT 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기존의 대선주조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젊은층에 보다 참신하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쟁PT에서는 학생들이 팝업 트럭, 유튜브 쇼츠 홍보, 스포츠구단 협업 이벤트와 같이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우수 팀에겐 대선주조가 준비한 상금과 경성대가 준비한 노트북 3대가 주어졌으며, 이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는 추후 대선주조 마케팅에 반영될 예정이다. 대선주조 조우현 대표는 "앞으로도 젊은층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며 특별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태광

제21회 매천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 개최



태광은 12월 20일 강서구 녹산산업대로 본사 회의실에서 매천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태광이 운영하는 매천장학재단은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서 부산의 중학생 25명, 고등학생 16명, 대학생 17명 등 총 58명에게 장학금 9628만원을 지원하였다. 태광 윤성덕 대표는 "꿈을 잃지 않고 전진하는 젊은이들을 도와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재목으로 성장토록 하는 일은 사회의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전했다. 매천장학재단은 2002년 100억원 규모의 자산으로 설립되었다. 장학금 전달식은 올해로 21회째를 맞았으며 올해까지 지역 우수 학생 총 1,720명에게 장학금 23억 6,572만원을 지원하였다.

에어부산(주)

'급여 끝전 모으기 캠페인' 모금액 환아 치료비 지원금으로 기부



에어부산은 12월 28일 에어부산 사옥에서 임직원들의 '급여 끝전 모으기 캠페인'으로 마련한 3,000만원을 부산사회복지모금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2023년 임직원들의 급여 끝전 모금액 약 1,500만원과 회사 출연금 약 1,500만원을 합쳐 총 3,000만원을 기부하였으며, 기부금은 부산 지역의 난치병 아동 치료 및 발달장애 아동 자립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급여 끝전 모으기 캠페인'은 임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에 따라 매월 급여 지급액 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을 공제한 후 이 금액을 모아 지역에 기부하는 방식의 사회 공헌 활동으로, 올해까지 에어부산의 누적 기부액은 총 1억원에 달한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지역 사회에서 보내주시는 애정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상공회의소 글로벌 경제인 과정 13기 모집

부산상공회의소 글로벌경제인과정은 2011년부터 운영되어온 지역 최고의 CEO 양성과정으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기업인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영·경제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최신 트렌드를 담은 강연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기업인으로 구성된 600여 명의 원우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 경제인 과정 13기 모집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강의 내용

Module 01 마인드 혁신과정

- 이끌지 말고 따르게 하라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쉽
- 향후 10년간 가장 중요해질 비즈니스 능력
- CEO의 공감소통과 자기표현
-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Module 02 경영기술 배양과정

- 미래기술 혁신방향
- 인공지능, 비즈니스의 변화
- 뉴노멀 시대 인사조직 관리
- 관점을 디자인하라
- 잘 만든 슬로건 하나가 기업을 먹여 살린다
- 불확실성 시대 기업의 생존 전략

Module 03 경영전략 수립과정

- 2024년 소비경제 트렌드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경제 전망
- 디지털전환시대, 혁신적인 고객 경험 혁신 전략
- 기업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다
- 2025년 부동산 시장 트렌드 코드
- 2025년 경제전망과 대응방안

Module 04 교양지식 배양과정

- 천만영화로 살펴보는 소통과 공감
- 논어에게 길을 묻다
- 와인특강
- 부와 권력의 비밀, 지도력
- 100세 인생, CEO의 건강관리

Module 05 네트워크 형성과정

- 등산 및 골프대회
- 문화체험활동
- 해외연수

Module 06 특강

- 성공 CEO 및 명사초청 특강

※ 일부 교육주제 및 교수는 교육운영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요 강사진



경영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



경제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협상

류재언

비즈니스협상전략그룹 변호사



4차산업

이경진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심리학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부동산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수강 후기



(주)지티에스국제물류 이광수 대표이사

차세대 기업인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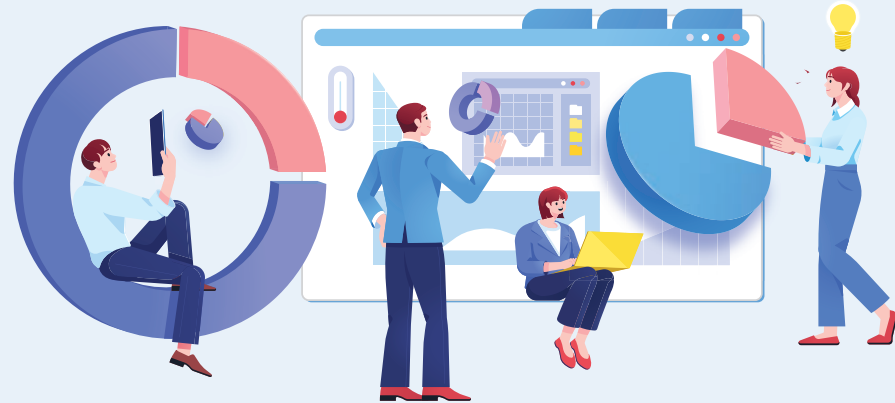
글로벌 경제인 과정이 제공하는 경영 경제 고전 트렌드 등 다양한 강의를 통해 다양한 세대와의 소통을 하고 화합과 협력을 통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배울 수 있었으며, 매사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습관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수 원우 및 총원우회 원우들과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만큼 지역의 많은 차세대 기업인의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제인 과정을 부산의 차세대 기업인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모집요강

모집인원	50명 내외
교육기간	2024년 3월 5일 ~ 11월 26일 ※ 상반기(3월 5일 ~ 6월 25일), 하반기(9월 3일 ~ 11월 26일)
강의시간	매주 화요일, 19:00부터 2시간
교육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기업 CEO 및 임원 • 정무기관 고위급 인사 및 전문직 종사자 • 기업승계를 준비 중인 2세 경영인 • 차세대 리더그룹
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사: ₩3,300,000(VAT포함) • 비회원사: ₩4,400,000(VAT포함) ※ 원우회비 및 해외연수비 별도
입금계좌	부산은행 031-01-030154-3(예금주: 부산상공회의소) ※ 카드결제 가능(방문 필)
모집일정	원서접수: ~ 2024년 1월 31일(수),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수강등록: 2024년 2월 13일(화) ~ 2월 19일(월) 개강식: 2024년 3월 5일(화)
신청방법	부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bcci.or.kr) 공지사항 수강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E-mail(dudrb@korcham.net) 제출 또는 우편 송부 [4735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부산상공회의소 9층 회원사업본부
신청서류	①수강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 ③증명사진 각 1부 ※ 대표자가 아닌 경우 재직증명서 1부
문의처 및 담당자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사업본부 박영규 과장대리(TEL. 051-990-7064)

부산상공회의소 2024년 실무교육 안내

부산상공회의소에서는 지역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실무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줄
세무/회계, 인사/노무, 경영/무역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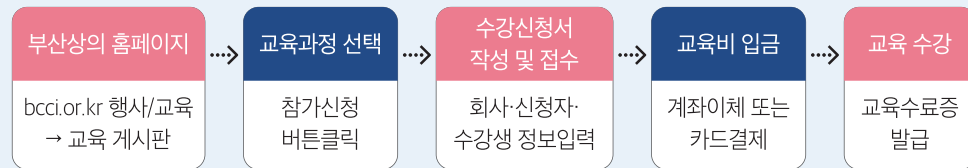
경영, 회계/세무, 인사/노무, 영업/무역 등 기업경영에 꼭 필요한 분야

- ☑ 교육일정: 1월~12월
- ☑ 강좌수: 총 54개 강좌(월별 1~6개 강좌 개설)

2024년 실무교육 특징

- 세무/회계:** 기업의 회계 및 세무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기초 실무부터 심화 교육 과정 등 6개 신규 교육과정 편성(총 28개 교육 개설)
- 인사/노무:** 사례 중심의 인사노무 실무 관리 및 실무 노동법, 4대 보험관리 등 5개 신규교육 과정 편성(총 15개 교육 개설)
- 경영/무역:** 현장개선 3정 5S실무 과정 및 계층-리더십 아카데미 과정 등 총 3개 신규교육 과정 편성 (총 11개 교육 개설)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교육비 결제

계좌입금/카드 중
선택 가능

구분	결제방법	제공서류
계좌입금	부산상공회의소 계좌이체	교육개최 당일 영수 세금계산서 (온라인 신청자 이메일로 발송)
카드결제	당일 현장결제	카드영수증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은행 031-01-030154-3, 회사/기관명으로 입금 필)

01 (제4차) 실무경력자를 위한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

일 시 1. 9.(화) 09:30 ~ 13:30(1일, 4시간)
장 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강 사 최재운 대표세무사(세무그룹 의정)
수강료 회원 44,000원, 비회원 88,000원

주제	내용	주제	내용
개정내용 정리 및 연말정산 사전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말정산 개정세법 관련 올해 달라지는 내용 정리 연말정산 시기, 의무자 연말정산 마무리 및 가산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조특법상 소득공제: 신용카드, 장기집합투자증권
근로소득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의 범위 및 과세 근로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사례 근로소득 세액 계산, 근로소득 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액감면,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02 (제2차) 초급입문자를 위한 2023년도 귀속 원천징수, 연말정산 실무교육

일 시 1. 12.(금) 09:30 ~ 17:30(1일, 7시간)
장 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강 사 김경하 세무사/노무사(나토안세무노무컨설팅 대표)
수강료 회원 77,000원, 비회원 154,000원

주제	내용	주제	내용
연말정산 사전준비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준비서류-시기-의무자-마무리 과다 소득공제에 따른 가산세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및 범위 비거주자-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
근로소득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의 종류-수입시기-금액 범위 비과세 근로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사례 	서식 작성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작성 실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작성 실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실무
연말정산 세액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의 세액계산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세율과 세액감면 세액공제(자녀세액, 연금계좌세액, 특별세액, 정치자금기부금세액) 	사업소득 연말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말정산 대상자와 의무자 및 연말정산 절차 사업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사업소득 연말정산 마무리

03 재무담당자를 위한 2023년 귀속(개정세법 포함) 법인결산 세무조정, 법인세 신고 실무

일 시 1. 18.(목)~ 19.(금) 09:00 ~ 18:00(2일, 16시간)
장 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강 사 이병현 세무사(現 에듀윌 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수강료 회원 176,000원, 비회원 352,000원

날짜	내용	날짜	내용
1. 18.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정세법 소개 - 2023년에 적용되는 개정세법 요약 정리와 2023년말과 2024년초에 개정된 세법중 주요 내용 소개 중소기업의 범위와 세제지원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이해 익금과 익금불산입 항목과 세무조정 - 의제배당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손금 및 손금불산입 항목과 세무조정 - 재세공과금 등 자산 부채의 평가 및 손익의 귀속시기 -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평가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1. 19.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익의 귀속시기 손금 및 손금불산입 항목과 세무조정 II - 인건비, 지급이자, 접대비, 감가상각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대손충당금 -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확정급여채무 - 대손충당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요건 및 소멸시효의 이해 소득금액 계산특례 및 산출세액 - 부당행위계산부인 - 가지급금인정이자 및 산출세액 계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일학습병행이란?**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활용하기 위해 구직자를 근로자로 채용하여 일을 담당하게 하면서 학습(현장훈련 등)을 하는 새로운 교육훈련 제도로 고용률 제고, 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 IPP형 일학습병행 : 4년제 대학 재학생이 전공분야 기업에서 장·단기현장실습(3학년)을 거쳐 일학습병행(4학년) 수행

- **참여효과** : 우수 인재의 조기발굴 및 검증, 신입사원의 재교육 비용 절감, 경력사원 같은 신입사원, 현장맞춤형 인재육성 및 채용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
- **정부지원** : 현장훈련 비용, 훈련지원금, 기업 전담인력 수당, 실습지원비 등 재정적 지원
조달청_물품제조, 입찰 가점 / 고용노동부_Best HRD 심사평가 우대 / 안전보건공단_클린사업장 선정 가점 / 병무청_산업기능요원 배정 1순위 등 행정적 지원
- **참여대상**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기술력 우수기업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 가능) 50인 이상 & 신용 B등급 이상, 강소기업, 명장기업 등 정부 인증 우수 사업장 우대

▶ YouTube 일학습병행

일학습병행 블로그 ▼ 검색

문의 및 상담 051.663.5612
pethsas@ks.ac.kr

부산상공회의소 사무실 임대 안내

층수	면적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월관리비(원)	비고
	임대	전용				
10층	47평 (155.4㎡)	28.4평 (93.8㎡)	61,100,000	611,000	1,222,000	임대료, 관리비 부가세 별도

※ 문의: 경영지원본부 남정호 과장대리(051-990-7034)

부산상공회의소 회의실 임대 안내

1F 대강당



좌 석 수 : 360석(극장식)
면 적 : 144평(476㎡)
현판규격 : 710cm×70cm
사 용 료 :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40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 (1H)	110,000원
오후 14:00~18:00	50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 (1H)	150,000원
1일	800,000원	냉·난방	140,000원

2F 상의홀



좌 석 수 : 200석
면 적 : 160평(528㎡)
현판규격 : 710cm×90cm
사 용 료 :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40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 (1H)	110,000원
오후 14:00~18:00	50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 (1H)	150,000원
1일	700,000원	냉·난방	140,000원

2F 국제회의장



좌 석 수 : 100석
면 적 : 99평(327㎡)
현판규격 : 480cm×80cm
사 용 료 :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28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 (1H)	80,000원
오후 14:00~18:00	35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 (1H)	120,000원
1일	500,000원	냉·난방	100,000원

2F 중회의실



좌 석 수 : 70석
면 적 : 57평(190㎡)
현판규격 : 480cm×80cm
사 용 료 :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22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 (1H)	70,000원
오후 14:00~18:00	28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 (1H)	100,000원
1일	400,000원	냉·난방	80,000원

회의실 사용료 할인안내

50% 할인 회원업체(당연)

20% 할인 회원업체(임의), 입주사, 3일(전일) 연속 사용업체 / 업체 시간외 냉난방비는 100% 할증

부산 원스톱 기업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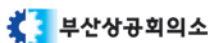
부산광역시청 1층에 위치한 원스톱기업지원센터는 지역기업의 애로와 규제개선사항을 신속히 파악·해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설립 목적

- 원스톱기업지원센터 구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 구현
- 신속한 기업 지원서비스로 부산기업 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고 기업 역량 강화와 부산경제 활성화 도모

▶ 협력 기관



▶ 주요 추진 사업

1 기업지원 소통플랫폼 운영

- 기업애로 접수·상담 및 정보 제공
- 기업애로 현안·동향 조사

2 기업애로 현장 지원

- 기업애로 현장 방문반 활동
- 기업애로 해소 협의체 개최
- 기업애로 전문컨설팅 지원

3 기업애로·제도개선 건의·진정활동

- 대정부 및 유관기관 건의·진정 활동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1층

Tel. 051-888-6491~3 | Fax. 051-888-6499 | E-mail. onestop@bepa.kr

